

한국생약보

협회지침

- 농민소득 증대
- 생산수출 증대
- 국민보건 향상

발행인 겸 편집인 임연학
인쇄인 장옥환
편집국장 전근택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대신B/D 3층)
TEL : 967-8133 FAX : 965-0643

1998년 2월 1일

THE HANKOOK-SAENG YARK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 223호

위기를 기회로

생약업계 지금이 "호기"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최근 환율인상으로 수입약재값이 폭등하자 지금이야말로 국산약재의 경쟁력을 기를수 있는 기회라는 다소 희망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IMF 구제금융신청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을 동반한 약재이긴 하지만 잘 활용만 하면 오히려 호기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성낙술 박사(특용작물연구개발실장)는 『국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10배까지 나던 약재들도 환율상승 이후 국산과 시세가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능가에서 생산비 절감을 통해 단가를 조금 더 낮출수 있다면 수입가격과도 충분히 경쟁가능성이 있고 고품질화를 통해 수출활성화로 달려도 벌어들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기 이사(생약협회 경남 합천군 사무소장)는 『정리하고 포장으로 지금처럼 유희노동력이 남아들게 되고 인건비가 떨어지면 생산원가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국내 생산능가

입장에서는 수입약재값은 오르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약재는 비용절감을 통해 단가를 낮춤으로서 수입산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기술집약적이고 전문화된 농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행 유지돼오고 있는 26개 수급조절품목도 언제 개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개방에 대비해 지금부터 국산약재의 고

품질화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능가들의 노력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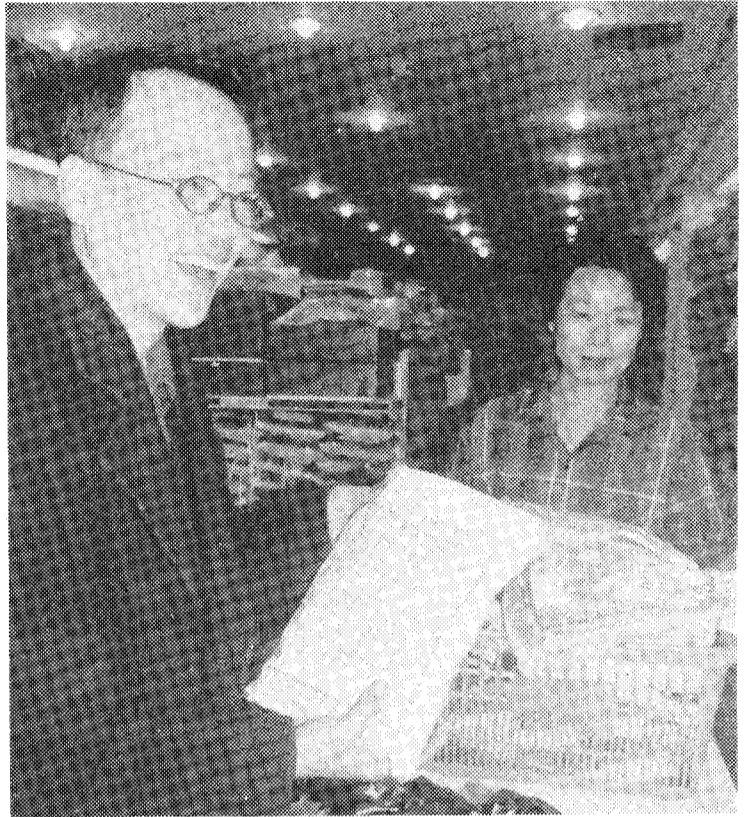
특히 국내생산기반이 없어 소비량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는 지황 감초 백출 곱향 시호 품목같은 경우는 비싼 외화를 낭비해가며 수입약재를 들여오는 대신 국내자급을 목표로 지금부터라도 국내 생산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지황 1호’ 수량성 우수 관행상 소비업체들 외면

개량종인 ‘지황1호’가 재래종에 비해 굵고 효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황1호’는 지난 95년 생약협회와 농진청 작물시험장이 공동으로 지황의 국내 자급기반 마련과 다수확품종개발 차원에서 연구끝에 농가에 보급한 개량품종으로 농진청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래종보다 뿌리가 굵고 수량성도 뛰어나다는 것.

그러나 국내 수요업체인 숙지황제조업체들에서 관행상 지금까지 굵기가 작은 지황만을 수입해 써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고 숙지황제조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품질이 뛰어난 개량종 지황의 소비를 기피함에 따라 국내산 지황 재배기반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도 국산약재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 나라가 금융대란을 맞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기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썰렁하기만 하다. 그래도 이런때일수록 우리것을 지키고 애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을 찾은 한 소비자. IMF한파에 매출은 뚝 떨어졌지만 국산한약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인기는 여전히 높다.

지 · 면 · 안 · 네

- ◎ 전문가에게 듣는다
IMF 생약업계 전망
(농진청 성낙술 박사).....3면
- ◎ 특별기획/IMF 사태 이후
시세동향과 수출입동향.....4·5면
- ◎ '97년 약용작물 시험연구 결과.....6면

“ 우리 약재는 우리 손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

생약재는 오천년 역사 속에서 조상대대로 선조들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가격경쟁이 안된다고 재배를 포기해서야, 비싸다고 우리것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것 '하나'를 지키는 일이 남의것 '두개'를 차지하는 것 보다 더욱 값진 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